

한국 기독교박물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

이덕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이 글은 한국의 기독교(개신교) 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오늘 종교 다원적(Religious Plural) 상황에서 기독교박물관이 지향할 과제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지난 2003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한 제 1회 학술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이다. 특히 윤이흠 교수의 “한국 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이란 기조 발제에서 한국 종교 상황을 세계 종교사의 흐름에 비추어 “1) 다종교 혼합 단계에서 2) 다종교 개방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내일의 지구촌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개방적 다원주의의 이상(the open and pluralistic ideal)을 구체적으로 전시하는 종교박물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 그리고 김홍수 교수는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란 연구 발제 논문을 통해 한국 기독교박물관을 1) 대학박물관, 2) 교회 박물관, 3) 사립(개인) 박물관 등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박물관의 연혁과 운영 현황 등을 정리한 후²⁾ 기독교 박물관의 과제로 1) 새로운 자료와 유물의 수집과 보완, 2) 전시 공간과 재정 확충 등을 지적하였다.³⁾

이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한 후, 종교박물관으로서 기독교박물관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독교박물관 운영 현황

여기서 ‘기독교 박물관’(Christian Museum)이라 함은 1)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단체가 설립하여, 2)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3) 소장 혹은 전시하는 내용이 기독교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목적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

- 1) 윤이흠, “한국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 <한국박물관협회 제 1회 학술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2003.12.15, 9-10쪽.
- 2) 김홍수 교수는 개신교 계통 뿐 아니라 천주교 계통 박물관도 포함하였다. 한편, 서정민 교수(연세대)는 논찬을 통해 기독교계통 전시관과 자료실 9개를 더 추가하였다. 서정민,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찬”, <한국박물관협회 제 1회 학술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2003.12.15, 30-31쪽.
- 3) 김홍수,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박물관협회 제 1회 학술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2003.12.15, 29쪽.

는 국내 기독교(개신교) 계통 박물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2004년 11월 현재).⁴⁾

기관명	소재	설립년도	운영주체	비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울	1967	송실대학교	김양선 목사가 기증한 고고학, 근대사, 한국교회사 관련 자료 전시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	대전	1982	한남대학교	박물관 내 <기독교 선교 자료실>에서 남장로회 선교 관련 자료 전시
전주대학교 중앙박물관	전주	1985	전주대학교	박물관 내 <기독교 역사실>에서 호남 지방 선교 자료 전시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화성	1987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 관련 유물 전시
배재대학교박물관	대전	1988	배재대학교	박물관 내 <배재역사관>에서 배재 역사 관련 자료 전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박물관	대구	1999	계명대학교	선교사 사택을 박물관으로 개조, 의료와 교육, 선교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서울		연세대학교	근대 의학과 의료 선교사 관련 자료 전시
언더우드기념관	서울	2003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을 전시관으로 개조, 언더우드 가문 관련 자료 전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물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연호 목사 기증 기독교 미술사 관련 자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백년사 자료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 역사 및 근대 여성운동, 여성학 관련 자료 소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자료관	서울	2002	감리교신학대학교	윤춘병 감독 기증 한국 교회사, 근대 문학 관련 자료 소장
이화여자고등학교 역사자료실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고 역사 및 초기 여선교사 관련 자료 전시
한국 순교자기념관	용인	1989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회	한국 개신교 순교자 관련 사진과 자료 전시
대한성서공회성서학 문헌정보자료실	서울	1990	대한성서공회	한글 성서와 외국어 성서 관련 자료 전시
국제성서박물관	인천	1995	주안교회	성서수집가 웨이크필드와 한경수 감독 기증 성서 관련 유물 전시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서울	1998	평강제일교회	고고학자 케네스 바인 기증 고대 중근 동 지역과 성서 관련 유물 전시
선화기독교미술관	논산	2000	선화교회	대전 선화감리교회 수양관 내 기독교 미술품 전시
밀알미술관	서울		밀알선교회	도자기와 동, 서양 미술작품, 특히 중국과 북한 작품 전시
한국기독교역사박 물관	이천	2001	한영제	기독교문사 설립자 한영제 장로가 수집한 한국교회사 관련 자료 전시

4) 여기서는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필한 박물관 뿐 아니라 미등록 박물관과 박물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 관련 유물과 자료를 소장,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과 자료실까지도 포함하였다. 김홍수,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박물관협회 제 1회 학술 심포지움: 한국 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2003.12.15, 23-29쪽; <한국박물관 요람>, 한국박물관협회, 2004.

지적박물관	제천	1999	이진호	지적사, 향토사 연구가 이진호가 수집한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 전시
한국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	순천	2004	등대선교회	순천과 전라도 지역 선교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예수병원역사자료실	전주		전주예수병원	예수병원 역사 및 남장로회 전주 선교 관련 자료 전시
애양원 역사박물관	여수		애양원	한국 최초 나병원 애양원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손양원 순교기념관	여수		애양원	순교자 손양원 목사 유품과 관련 자료 전시
이기풍 기념관	제주		이기풍기념사업회	이기풍 목사 관련 자료와 한국 기독교 역사 관련 사진 전시
한경직 기념관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기념 도서관 안에 한경직 목사 관련 자료 소장
남궁역 기념관	홍천		한서교회	강원도 지원을 받아 한서 남궁역 관련 역사 자료 전시
제암리순국기념관	화성		제암교회	경기도 지원을 받아 제암리 사건 관련 사진과 자료 전시
유관순기념역사관	천안		매봉교회	매봉교회 안에 유관순 열사 관련 사진 자료 전시
새문안교회 역사자료관	서울	2002	새문안교회	새문안교회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정동제일교회 역사자료실	서울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정동제일교회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상동교회역사자료실	서울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상동교회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연동교회역사자료실	서울		연동교회	게일 선교사와 연동교회 역사 관련 자료 전시
종교교회역사자료실	서울		종교교회	윤치호와 양주삼 및 종교교회 역사 관련 자료 전시
부산진교회역사자료실	부산		부산진교회	부산진교회 역사 및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관련 자료 전시
문창교회역사자료실	마산		문창교회	마산 문창교회와 마산 선교역사 관련 자료 전시
내리교회역사자료실	인천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와 감리교 인천 선교역사 관련 자료 전시
서문교회역사자료실	전주		서문교회	전주 서문교회 역사 및 남장로회 전주 선교 관련 자료 전시
상락교회역사전시관	예천	2003	상락교회	영주 상락교회 역사 및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 전시

이 외에도 필자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설립 준비 중인 박물관이나 자료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필자가 파악한 바, 전시 규모나 내용에서 박물관이나 자료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위 40여 곳 기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첫째 설립이나 운영 주체로 보면, 기독교 계통 대학이나 기관 단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절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순수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이천의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과 제천의 지적박물관 정도이다. 이는 박물관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여건이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학이나 교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그 단초는 열정을 가지고 수집하였던 개인 소장품을 기증받아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기관이 개인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수집하여 대학에 기증한 유물도 기관으로 들어간 후 보충되지 않아 보관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와 연구를 통한 유기적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둘째 전시 내용으로 보면 기독교계 박물관(자료관)은 1) 기독교 역사, 2) 성서, 3) 문화 관련 자료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도 기독교 선교와 역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절대 다수인데 최근 들어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역사를 정리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체 역사 자료실이나 전시관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서 관련 박물관도 여럿 있는데 성서고고학이나 고대성서 관련 유물로 국제적인 수준의 박물관도 눈에 띈다. 이는 기독교박물관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성서'에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문화 관련 전시관으로는 미술관이 두 군데 있을 뿐 문학이나 음악, 전례, 건축, 성구(聖具), 연극, 영화 등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은 전무한 상태다. 전시물과 전시 내용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시 형태로 보면 상설 전시를 하는 곳이 절대 다수이며 주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며 기획 전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 박물관이든 교회 박물관이든 개관 당시 전시품을 5년 넘게 그대로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 전시를 하는 곳은 역사가 오래지 않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정도이다.⁵⁾ 대부분 박물관이 기획 전시를 꺼리는 이유는 전시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보다 근본적이 원인이 있다. 상설 전시는 관람객을 다시 오게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획 전시는 한 번 방문한 관람객을 다시 박물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얻는다. 바람직한

5)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는 2001년 개관 기념으로 “기독교와 한글: 한말 기독교고문헌 자료전시회”를 개최한 후 2002년에 “두고 온 교향 돌아갈 교회: 북한교회사 관련 자료 전시회”, 2003년 “한국 초대교회 신앙생활: 선교 초기 교회사 자료전시회”, 2004년 “민족과 함께 한 복음 선교 120년: 한국기독교 역사 자료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것은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병행함으로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2. 기독교박물관의 당면 과제

다른 종교 박물관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역사가 오래지 않은 기독교박물관이 시급히 해결할 문제점과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이념 정립이 필요하다. 기독교박물관은 ‘선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 박물관과 구별된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기독교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전하려는 ‘포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인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염두에 둔 운영과 전시를 추구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박물관은 지나치게 ‘기독교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비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을 염두에 둔 전시가 이루어지고 못한 측면이 있다. 굳이 ‘개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인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선교 기관으로서 기독교박물관 조직과 운영에 대한 분명한 ‘선교 의식’이나 ‘신학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물관 운영의 성공적 기반이 되는 역사의식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박물관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물관 관람객 대부분은 지도자(목사나 교사)의 인솔 하에 아무런 의식 없이 ‘구경삼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라도 박물관에 들어와서 전시품을 보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얻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과 지역교회가 연대하여 역사와 문화 관련 공동 세미나나 연구 모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문화 의식과 역사의식이 고취될수록 박물관 운영의 전망이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박물관의 기능을 전시 차원에서 연구 차원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을 단순한 ‘구경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시된(혹은 소장한) 자료를 통해 연구 지평을 넓혀 감으로 박물관의 학술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문 연구원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정한 박물관 설립 요건에 ‘학예사’ 확보 조항이 있지만 고고학이나 문서정보학, 도서관학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학예사 교육 과정으로는 기독교박물관과 같은 ‘특수’ 분야 박물관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선교 역사가 1백년이 가까스로 넘은 기독교 및 근대 역사 관련 자료, 또는 성서 고고학과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는 다룰 수 없는 ‘특수’ 자료를

주요 소장품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박물관의 학예사는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장 자료의 특성상 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 역사와 자료 관련 전문 연구원을 학예사로 둘 수 있어야 한다.⁶⁾

또한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공간에 자료 열람과 연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학예사를 중심한 내부 연구 뿐 아니라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하려는 외부 연구자들에게도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 안에 '연구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대부분 박물관이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열람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시된 자료 뿐 아니라 전시되지 않은 자료들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소장 자료를 복제, 영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개와 열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재정 확보와 확충이다. 단체 운영이든 개인 운영이든 대부분 기독교박물관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관람객 입장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기독교 박물관은 대부분 독지가의 현금이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교인들의 현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운영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운영 박물관의 경우에도 역사와 문화, 특히 '기독교'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독교 박물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며 그 결과 자료 보완이나 기획 전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열악한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펼치거나 수익원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교회와 일반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 1세기 만에 신도 1천 만을 육박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 분야에선 아직도 교회의 투자가 빈약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을 통한 '문화 선교'에 한국 교회는 좀 더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교회 자체로 박물관과 역사 자료실, 미술관, 영화관, 음악 연주실, 연극 공연장 등을 설립하여 문화 선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일반 사회의 지원도 필요하다. 종교를 통한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단체의 기독교박물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⁷⁾

6)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박물관은 한국 교회사 및 문화사, 성서고고학 분야의 전공 학자를 학예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다른 박물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하여 박물관협회 같은 곳에서 박물관학의 기초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단기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7) 이런 맥락에서 2004년 문화관광부가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해 사립 박물관에 '복권기금' 지원 사업을 펼친 것을

3. 기독교박물관의 전망

오늘의 종교 다원적 현실에서 기독교박물관이 담당해야 할 미래과제는 무엇보다 종교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종교다원 사회에서 종교간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충돌을 가급적 피하면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민족의 공동선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종교박물관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다른 종교박물관처럼 기독교박물관은 설립 목적이 '선교'에 있다. 기독교 신앙과 역사를 소개하고 선전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 및 박물관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종교간 갈등과 충돌은 종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보는 시각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배타주의'(exclusivism), '포괄주의'(inclusivism), '다원주의'(pluralism)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배타주의' 입장은 기독교만이 절대 완전 종교로 인식하고 다른 종교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태도이며, '포괄주의' 입장은 기독교를 완전 종교로 보지만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화하는 태도이다. '배타주의' 입장이나 '포괄주의' 입장은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기독교로의 개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중심주의라 할 수 있다.⁸⁾ 그러나 '다원주의' 입장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대화를 시도하는 태도이다. 다른 종교와 대화함으로써 자기 종교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개종'이 목적일 수 없다. 한국과 같은 종교 다원 사회에서 기독교는 과거 '배타적' 입장에서 다른 종교와 갈등을 빚어왔고, '포괄적' 입장에서 종교간 대화를 추구하였으며 최근 '다원적' 입장에서 종교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기독교박물관은 다른 종교박물관과 협력하여 종교간 평화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 신앙과 역사를 소개하고 선전한다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면서도 다른 종교박물관들과 협력하며 종교 평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은 오늘 현실에서 기독교박물관이 다른 종교박물관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전망해 본다.

첫째, 연구를 통한 교류 확대다. 이미 종교학자들 사이에는 상당 수준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종교인과 신학자 사이에는 아직 연구 교류가 활발하

참으로 바람직하였다.

8) 한인철, "존 칼의 다원주의적 기독교론과 선교",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의 미래》, 종로서적, 1989, 283-303쪽 참조.

지 않다. 자기 종교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며 자기 종교 자료에 대한 다른 종교 학자들의 연구 조언과 연구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박물관 사이의 교류도 필요하다. 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다른 종교와 관련된 자료들도 적지 않은데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⁹⁾ 그리고 기독교 유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와 다른 종교와 접촉하며 ‘토착화된’(indigenized) 기독교 자료에 대한 다른 종교 학자들의 연구와 해석이 자료 연구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박물관 소장 자료 중에 ‘다른’ 종교 관련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학자나 박물관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교류를 통해 기독교박물관은 소장 자료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시를 통한 교류 확대다. 연구 교류가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봉사라면, 전시 교류는 일반인들을 위한 봉사다. 각 종교박물관이 소장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갈 수 있고 전시 교류를 통해 다른 종교의 역사와 신앙 관련 자료를 보면서 자기 종교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시 교류는 공동 전시와 교환 전시,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공동 전시는 여러 종교 박물관들이 소장 자료를 제공하여 공동 전시하는 방법이다. 같은 공간 안에서 여러 종교 관련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자기 종교와 다른 종교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⁰⁾ 다음으로 종교박물관 사이에 자료를 교환하여 전시하는 방법이다. 우선 같은 기독교박물관들 사이에 전시 교환을 하고 개신교↔천주교, 기독교↔유교, 기독교↔천도교, 기독교↔불교 사이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전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자세를 취한 종교인들이 주관하고 관람할 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폐쇄적이고 ‘배타적’ 입장이 아직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 시기상조라 할 수 있지만, 종교간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9) 예를 들어 해방 후 경주 불국사 인근에서 발굴되어 현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교 관련’ 들십자가와 마리아상에 대한 불교 미술, 불교 건축 관련 학자의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10) 이미 1980년대부터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종교를 초월한 ‘종교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 바, 2003년 10월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한국종교미술가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종교미술전람회’에서는 미술 작품 외에 종교 박물관까지 전시하여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비롯한 불교, 천도교 박물관에서 소장 자료를 제출, 전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

4. 맺음글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제와 전망을 정리해 보았다. 종교 역사 1천여 년이 넘는 불교나 유교 박물관에 비하면 기독교 박물관은 내용이나 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교 역사 1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민족운동과 관련,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 결과 오늘 기독교는 우리 '민족 종교'의¹¹⁾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기독교박물관은 이런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연구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기독교 학교나 기관 단체, 교회, 개인 등이 운영하는 기독교박물관은 (자료실이나 전시관을 합쳐) 40여 개에 이른다. 대학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몇몇 박물관을 제외하곤 시설 규모나 전시 내용이 아직은 빈약한 면이 없지 않다. 전체적으로 기독교박물관은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와 연구에 종사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 확보도 시급한 현안이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박물관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로 알차게 운영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서울과 지방의 교회들이 역사 관련 전시관이나 자료실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현상도 바람직하다. 한국 교회의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그리고 종교다원화 상황에서 기독교박물관은 다른 종교박물관과 협력하여 종교를 통한 민족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종교박물관 사이의 연구와 전시 교류를 통해 종교간 이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 내부의 종교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종교간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종교박물관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종교가 민족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 종교 박물관도 오늘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과제인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이라는 공동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

11) 여기서 '민족 종교'라 함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둔 종교나 우리나라에서 발원한 종교(예를 들면 천도교나 대종교)를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비록 외래 종교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내려 '토착적' 종교 문화를 만들어 낸 종교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